

2023. 5. 17.(수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5월 17일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재무국 38세금징수과

38세금징수과장	오세우	2133-3450
----------	-----	-----------

38세금총괄팀장	박희숙	2133-3452
----------	-----	-----------

담 당 자	유지연	2133-3464
-------	-----	-----------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: 2쪽

관련홈페이지 (메뉴)
----------------

<https://www.seoul.go.kr/>

### 서울시,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제공·체납자 1,706명(건)에 사전 고지

- 2023년 5월 15일 안내문 발송, 2023년 5월 31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납부촉구
- '23년 개인 1,347명, 법인 359건...체납 건수 총 15,142건, 체납액 1,100억 원
-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 시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 분류...금융상 불이익

(#사례1)

▶ A씨는 2020년에 부과된 취득세 23백만 원을 체납 중으로, 38세금징수과로부터 체납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 예정이라는 안내문을 받았다. 안내문에 적혀있는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해 체납된 세금을 전액 납부하고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대상에서 최종 제외되었다.

(#사례2)

▶ B씨는 2019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등 지방세 5건이 2020.10월에 부과되어 35백만 원을 체납 중이다. 신용카드사용이 중지된다는 연락을 받고 그 사유를 알아보던 중 서울시에서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체납액 전액 납부하였다.

- 서울시는 “서울시 체납자 1,706명(건)에 5월 15일 일제 안내문을 발송하고 5월 31일까지 납부 안내했으며,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한다”고 밝혔다.

- 2023년 상반기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신규대상자는 개인 1,347명, 법인 359건으로 총 1,706명(건)이다. 이들의 체납 건수는 총 15,142건이고 체납액은 1,100억 원이다.
  - 체납정보제공 대상자는 체납한 지 1년이 지나고 500만 원 이상인자, 1년에 3건 이상 체납하고 500만 원 이상인자이다.
  
- 2021년부터 서울시와 자치구, 자치구와 자치구 간 체납액을 합산하여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제공을 하고 있다. 이전에는 서울시나 자치구에 각각 500만 원 미만으로 체납액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제재를 피할 수 있었지만, 합산 제재 시작으로 소액 체납자도 체납 정보 제공 대상자가 되었다.
  - 올해 자치구별 합산 대상자는 253명(건)으로 체납 건수는 2,252건이고 체납액은 37억이다.
  
- 서울시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·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에 걸쳐 이뤄진다. 서울시는 2022년 총 1,570명(건)의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했고 그 결과 17억 원을 징수하였다.
  
-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그 즉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등록 후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되어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제약을 받는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.
  - 제공내용은 ▲이름(법인의 경우 법인명) ▲주민등록번호(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, 법인등기번호) ▲세목 ▲납기 ▲체납액(정리보유액) 등이다.
  
-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은 “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소액 체납자라 하더라도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함으로써 세금 납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겠다”고 말했다.